

특별선교주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사도행전 2:39

미원주민선교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특별선교주일

### 미원주민선교주일

##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지**난 8월, 아름다운 노을 아래 테네시주 벤슨 호수에 덩 빈 빨간 드레스와 나무판이 부드럽게 떠 있었습니다. 판 위에 놓인 잔에 담긴 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와 초는 실종된 미원주민 여성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국립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만 5,712명의 미원주민 혹은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들과 소녀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미원주민 공동체에서 살인은 주요 사망 원인 3위에 올라 있으며,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0배가량 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성 및 소녀 실종 사건 중 일부는 성매매범들의 소행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며, 이모이며, 할머니이며, 사촌이지만 —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체로키 부족 출신이면서 평생 연합감리교인으로 살아온 매리 T. 뉴먼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서컨터 키연회에서 일하면서 연회 전체가 미원주민 문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끝나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성들과 소녀들이 죽어가는 전염병 같은 이 사태는 끝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일어나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미원주민모카신락(Native Moccasins Rock)이라는 편안하고 유쾌한 미원주민에 관한 행사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내슈빌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원 기독교 캠프이자 수련화장인 레이크벤슨캠프(Camp Lake Benson)에서 열렸습니다.

“미원주민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테네시주 누벨리에서 온 린다 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행사 참가자이면서 미원주민의 혈통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몇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미원주민들의 기도를 좋아하고,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미원주민모카신락 행사는 간단히 “목소리(Mocs Rock)”으로도 불리며 미원주민들과 미원주민들이 아닌 이들 모두를 위한 행사라고 데이 피츠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섹웨페믹(Secwepemc) 부족의 일원이며 테네시-서컨터키연회의 미원주민사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카신락 행사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미원주민 문화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는 일이 그들의 문화 및 사역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함께 지키며 특별헌금을 드리는 6개의 특별선교주일의 하나이며, 우리의 예물은 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행사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와 사진 보기:**

<https://www.umnews.org/en/news/weekend-spotlights-native-culture>

####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